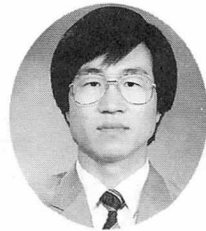


국제 곡물가격 전망과 향후 대책



신병훈 과장
(한국사료협회 기획조사부)

1. 곡물 가격동향

최근 미산옥수수 가격은 미국 CBOT 개장(1848년) 이후 사상최고치인 뷰셀당 4.555달러(c&f 톤당 217불)를 기록하고 있어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0%(72불) 폭등하였고 94년도에 비해서도 64%나 급상승한 실정이다. 이와같은 옥수수 가격의 주요 강세요인은 다음과 같다.

현재(4월8일) 미옥수수 파종작업은 초기단계로 전체평균 3% 정도 진행되어 과거 5개년 평균치인 5%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미중서부 지역의 건조기후로 파종이 지연되고 있어 작년과 같이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어 지속적인 가격지지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농무성(USDA)이 지난 4월 11일 옥수수재고량을 발표한 결과 재고량이 지난달 예상치인 1,016만톤보다 3.5% 감소하여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즉 4월에 발표한 미옥수수 재고량은 지난 3월 12일에 발표한 재고량 1,016만톤에 비해 8.4% 줄었고 3월 29일에 발표한 재고량 965만톤에 비해서도 3.5% 더 줄어들어 현재 재고율(총수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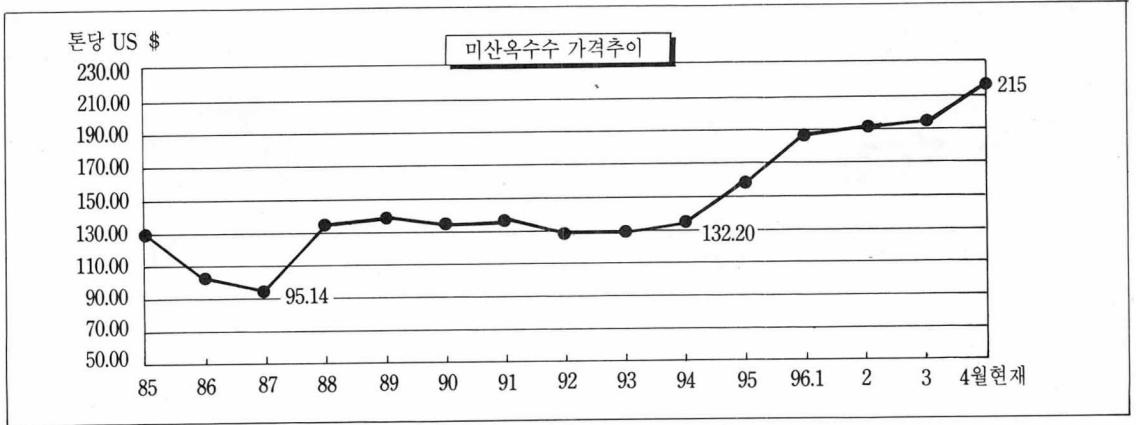
재고량)이 약 4.3%에 불과하여 미국 소비기준으로 볼때 약 16일분에 해당하고 있어 지난 과거 10년간의 평균재고율 38%(100일분) 수준에 크게 밀돌아 곡물부족에 대한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농무성(USDA)의 옥수수 식부예상 발표결과 식부면적이 당초 예상치보다 감소하였다.

금년 미옥수수 파종면적은 7,992만 에이커로 예상하여 지난 과거이래 최고 수준으로 예상되었으나 당초 트레이더들은 금년 미농업법(FARM BILL)이 개정됨에 따라 농가보조금이 철폐되고 옥수수가격 상승에 따라 옥수수 파종면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미농무성이 발표한 수치가 크게 밀돌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가격전망

현재 미산옥수수 가격은 근본적으로 세계적인 곡물수요 증가와 미옥수수 재고압박이 곡물가격 급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식부면적이 당



〈그림1〉 미산 옥수수 가격추이

초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최악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당분간은 고가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도 가격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식부

〈표1〉 미국 옥수수 재고량

| | 4월11일 (USDA) | 3월29일 (USDA) | 시장분석가 예상치 | 94/95년 재고량 | 10년간 평균치 |
|--------|-----------------|-----------------|--------------|---------------|-------------|
| 재고량 | 931만톤 | 965만톤 | 990만톤 | 3,957만톤 | 5,950만톤 |
| 재고율(%) | 4.3% | 4.4% | 4.5% | 16.6% | 38.4% |

〈표2〉 미국옥수수 식부예상면적

(단위 : 백만에이커)

| 3월29일 USDA 발표치 | 시장분석가들의 재고예상평균치 | 분석가들의 예상범위치 | 1995년 파종면적 |
|-------------------|--------------------|----------------|------------|
| 79,920 | 81,217 | 79.2~83.0 | 71,245 |

〈표3〉 연도별 옥수수식부면적 및 생산량

| 연도별 | 식부면적 (1,000에이커) | 수확면적 (1,000에이커) | 단위당수확량 (톤/에이커) | 생산량 (백만톤) |
|------|--------------------|--------------------|-------------------|--------------|
| 1987 | 66,200 | 59,505 | 3.04 | 181.1 |
| 1988 | 67,717 | 58,250 | 2.15 | 125.2 |
| 1989 | 72,322 | 64,783 | 2.95 | 191.3 |
| 1990 | 74,166 | 66,952 | 3.01 | 201.5 |
| 1991 | 75,957 | 68,822 | 2.76 | 189.9 |
| 1992 | 79,311 | 72,077 | 3.34 | 240.7 |
| 1993 | 73,235 | 62,921 | 2.56 | 160.9 |
| 1994 | 79,175 | 72,887 | 3.52 | 256.6 |
| 1995 | 71,245 | 64,995 | 2.88 | 187.3 |
| 1996 | 79,920 | | | |

면적의 증가였으나 이미 금년도 식부예상면적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수입국들과 트레이더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중국이 올해에 일본, 한국 등에 대해 옥수수 150~200만톤 가량 수출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일시적인 가격 하락세를 유지하였으나 중국의 중앙 정부로부터 수출승인 여부가 확실치 않음에 따라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본의 농림수산성 곡물사절단은 남아프리카 지역의 곡물을 시찰조사한 결과 금년 작황은 매우 양호하여 작년도의 생산량 441만톤에서 금년도 생산은 956만톤으로 무려 117% 증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남아프리카 소비량을 연간 650만톤에서 700만톤을 감안할시 금년 수출량은 300만톤에서 350만톤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이에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금년 5월쯤부터 신곡출하가 기대되어진다.

현재 미산옥수수의 가격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앞으로 파종면적이 3월29일 발표치보다 증가하고, 파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나, 만일 금년도 미국의 식부예상면적이 감소하고, 일기불순 등으로 파종이나 생육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가격폭등과 함께 장기적인 수급불안이 우려된다.

현재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7~8월분까지 옥수수 수입물량을 커버하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 5~6월까지밖에 커버하지 못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7월까지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하락시 추가구매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시장분석가들도 금년 신곡생산이 대두될 9월까지의 옥수수 가격의 하락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다.

3. 향후 대책

농업생산은 자연조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공산품과 달리 일시에 공급을 증대시키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국내 생산을 통해 자급률을 높여나간다 해도 지금과 같이 외국의 사료원료 가격의 4~6배되는 원가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 축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곡가과동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최소한의 국민식량에 대한 자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어차피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료곡물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사료용 곡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수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연구가 되어왔고, 이에 따라 수입선의 다변화, 다양화를 통한 공급자 득점시장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왔지만 현재 상황과 같이 대체곡물이 없고, 오히려 여타수입국들의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하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또한 시카고 선물시장에 대한 참여와 현지 개발수입에 대한 논의도 있지만 선물거래는 현재 많은 국내 사료회사나 곡물수입회사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거래의 속성상 일부분의 위험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고 있고, 현지 개발수입은 과거 일본의 실패에서도 보았듯이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아몽튼 현재 여건에서 보다 효율적인 구매를 위해 수입자측인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곡물시장에 대한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장기공급계약(100g term Contract)를 강구해나가고 선물거래 등을 통해 향후 가격상승에 따른 위험부담을 회피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같은 곡가과동에 따른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중소규모 양축농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배합사료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전 양축농가에 확대적용해 주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WTO체제의 출범이후 외국의 축산물 수입이 코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료용 원료의 관세 또한 일본과 같이 영세로 해주어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지속되는 원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배합사료가격의 인상은 사료산업은 물론 축산업의 발전에도 장애요인이 될 것이므로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사료산업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축산발전 기금등에서 사료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곡가하락시 사료곡물을 안정기준 가격제도등을 도입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한 후 이보다 하락시에는 하락분을 적립해 두었다가 기준가격보다 상승시에는 보전해 줌으로써 가격완충 기능을 갖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곡가상승은 국내 배합사료업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배합사료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있는데 양축농가들께서도 이와같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산 규모를 유지하여 축산물 가격의 안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